

# 강진 야산서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발견

### 자살한 용의자 '제2의 휴대폰' 확보... 사건 동기·공범 가능성 '열쇠' 시신 발견된 야산은 경사급해 용의자 혼자서 옮기기 어려워

전남 강진의 한 야산에서 지난 16일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지난 24일 전남지방경찰청과 강진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 경 강진군 도암면 지석마을 뒷편 야산에서 A양(16)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 발견지점은 마을에서 도보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산 정상과 가까운 풀숲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된 A양의 옷은 상당 부분 벗겨진 상태였고,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시신의 부패 정도는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의 키와 체격 등을 육안 확인한 데 이어 지문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이며,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A양 추정 시신의 DNA 감정 결과는 이르면 25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양 추정 시신은 실종 9일째인 24일 오후 강진군 도암면 매봉산(해발 250m) 정상에서 50m쯤 내려간 지점에서 체취견을 데리고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앞서 A양은 지난 16일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나선 뒤 실종됐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B씨



지난 24일 오후 전남 강진군 한 야산에서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 등이 수습하고 있다. 이 여고생은 지난 16일 오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아버지 친구와 해남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문자를 남긴 뒤 실종됐다.

(51·A양 아버지 친구·사망)는 A양의 어머니가 집을 찾아오자, 도암간 뒤 자살했다.

경찰은 A양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아버지 친구 B씨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망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강진경찰서는 용의자 B씨가 평소 '제2의 휴대폰'을 사용한 정황을 잡고 사건 당일 사용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

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B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A양과 문자 또는 통화한 기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B씨가 사건 당일 '제2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A양과의 통신 여부, A양 추정 시신이 발견된 지점까지의 동선,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B씨의 차량 동선과 '제2 휴대폰'의 신호가 일치하는지도 분석 중이다. B씨의 차량은 16일 오후 2시쯤 A양의 집 근처 CCTV에 찍힌 뒤 시신이 발견된 야산에서 2시간 반 가량 머문 다음 오후 5시 17분쯤 자택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지금까지 A양이 B씨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만 할 뿐 A양과 B씨가 만난 장소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A양이 B씨의 아르바이트 자리 주선 제의에 따라 16일 오후 1시 30분 넘어서 집을 나간 점, B씨 차량 동선과 A양 휴대폰 신호가 잡힌 코스가 일치한 점 등으로 미뤄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왔다.

또한, A양 추정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경사가 60~80도로 매우 심한 곳여서 B씨 혼자서는 A양을 끌고 가거나 시신을 옮기기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에 따라, 경찰은 B씨의 '제2 휴대폰'에서 통화·문자 내역이 나올 경우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효철 기자

## 당선자와 낙선자 현수막 홍수로 눈살

### 익산시, 주요 교차로 현수막 단속 여부 고민

지방 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길거리 곳곳에 후보자와 지지자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어 익산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익산시청 정문 앞은 각종 지역단체들이 시장 당선자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경쟁하듯 내걸며 '현수막 홍수'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축하메시지가 담긴 현수막까지 난립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 정문에는 익산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당선된 동문들의 이름까지 빼곡히 적은 현수막이 내걸려 있을 정도다.

익산시는 주요 교차로 등에 걸려 있는 이들 현수막의 단속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직접 게시하

는 현수막에 한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간 해당 선거구 읍·면·동 별로 1장씩 설치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변단체나 동문회 등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거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상 단속 대상이다.

방 모씨는 "평소 일반 현수막들이 불법 게시되면 즉각 걷어내면서 당선인들을 축하하는 현수막들은 아직도 그대로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너도나도 다 걸어두고 난립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선거 현수막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라며 "선거관련 현수막의 게시기한 후에는 모두 치울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시가 맞춤형 일자리행사를 통해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전주시역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

## 전주시민 한마음 자전거 행진

### 기린대로 행진하며 안전운전 실천 다짐

### 팔복예술공장 관람·자전거 행진 사진 전시

전주시는 지난 23일 시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청에서 출발해 기린대로 → 팔복예술공장 → 기린대로 → 시청에 도착하는 약 13km 코스를 자전거를 타고 함께 달리는 6월 자전거 행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진은 지난 4월에 이어 2개월 만에 열렸고, 가족단위 참가자와 친구들과 함께 나온 학생,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가한 시민들은 전주의 주요 간선도로인 기린대로를 시원하게 달려보며 자전거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 환경의 필요성과 자동차 운전자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의 '안전수칙 지키기 실천약속 서명' 이벤트를 했으며, 휴식시간을 이용,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을 통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비전 팔복예술공장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덕진지역자활센터의 두 바퀴 행복사업단은 이날 현장에서 자전거이용수리센터를 운영, 점검 및 정비서비스를 제공했다.

전주시는 올해 시민 자전거행진을 총 6회 실시할 예정으로, 올 하반기에는 9월, 10월, 11월 등 3회에 걸쳐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 검찰, '부안 교사 사망 사건' 피고소인 10명 무혐의 처분

지난해 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검찰이 교장 등 피고소인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장, 부안 모 중학교 교장 등 10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부안 모 중학교 교사 송모(당시 54)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전북 김제시 한 주택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초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같은 해 4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내사 중결됐다. 당시 경찰은 송씨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교육지원청은 매뉴얼에 따라 송씨에 대해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했고, 진상 조사에 나선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강제전보 조처를 요구했다.

송씨의 부인은 지난해 8월 말에 "남편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인권 당국이 부당하고 강압적인 조치가 있었다"라며 "남편의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일을 수사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면서도 "유족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할 부분이 있겠지만, 각종 법령과 지침, 매뉴얼을 살펴볼 때 피고소인들을 형사처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현장채용 면접의 날' 열려

전주시가 맞춤형 일자리행사를 통해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전주시역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25일 센터 민들레홀(강당)에서 현장면접 및 채용, 구직상담, 지문적성검사 관련 체험 및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직자 100여명과 하네비케이, (유)청샘비엔에프, 사랑방재가복지센터, 엄지식품, 북카페아르고, 전주태조중 관광호텔, 발빛마루게스트하우스, 르윈호텔, 럭스피아, 씨지트로닉스, (주)길승산업, 한국농생명기술원, (주)디더스금융판매, KGA(주)비래플랜지, 지오원전지용합계발전원, 메이커패토리 등 15개 업체, 구인계획이 있는 20개 업체 등 총 35개 업체가 참여, 현장면접 및 채용에 나섰다.

박성숙 센터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채용 면접의 날을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한사람의 상담·한사람의 훈련·한사람의 취업을 소중히 생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 단절여성 등에 관한 경제활동촉진법'에 근거,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결혼과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위해 상담 및 교육훈련부터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한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취업 관련 안내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www.jwomans.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32-2352~3)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

